**막0104 Note**

**"회개의 침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Ⅰ. 말씀 발췌**

"회개의 침례"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서, 본인은 이를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회개, 침례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발췌해 보았습니다.

1. 마태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마0302. 그리고 말하되, 너희는 회개하라(마음,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에오:생각하다,재고하다, 가책을 느끼다,뉘우치다,회개하다), 이는 천국의 왕국(바실레이아)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마0306. 그리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니라.

마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어울리는) 열매들을 내라.

Ω마0311. 나는 실로 회개(마음과 생각을 바꿈, 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에 이르게 하려고 [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착색하다)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세력(힘)이 있으시니, 나는 그 분의 신들을 들고 다니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다다스코:가르치다,배우다)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2. 마가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Ω막010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의 침례'를 전파(선포)하니라.

막0105.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미완료 시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막0108. 참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었거니와,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느니라.

3.누가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Ω눅0303. 그리고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면서, 그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눅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족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느니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함이니 곧, 하나님은 이들 돌들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눅0316. 요한이 대답하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느니라, 그러나 나보다 더 세력(힘)있는 분이 오시느니라, 나는 그분 신발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4.요한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Ω요01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니라, 말하되, 나는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오이다: 체험,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 보다,알다,깨닫다,생각하다,지식을 갖다,쳐다보다,느끼다,확신하다,말하다,이해하다,알고 있는,알고 있다/호크마 주석: 교제와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아는 상태)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느니라.

요0133.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으니,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는 자,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니라.

5.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

행0105. 이는 요한이 참으로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었으나, 너희는 지금부터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이라."

Ω행02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너희 낱낱의 자는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행1324.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고,

**Ⅱ. 살펴보기**

1. **회개의 침례**

Ω막010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의 침례'를 전파(선포)하니라.

Ω눅0303. 그리고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면서, 그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행1324.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그리고 사도행전에 '회개의 침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회개와 침례가 떼어낼 수 없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침례가 있어야 하며, 침례의 자리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알 수 있는 죄 :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하나됨)를 받으라**

마0302. 그리고 말하되, 너희는 회개하라(마음,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에오:생각하다,재고하다, 가책을 느끼다,뉘우치다,회개하다), 이는 천국의 왕국(바실레이아)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마0306. 그리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니라.

막0105.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미완료 시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Ω행02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너희 낱낱의 자는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3장2절과 3장 6절에서 보면, 이 '회개의 침례'가 분리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자백은 회개에 따른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1장 5절에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침례'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회개의 침례"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돌아섬)없는 침례(하나됨)는 없다는 말씀이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침례(하나로 됨)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알 수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의 침례’는 회개를 전제로 한 침례(회개 후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역죄인이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반역 죄인이 왕과의 종전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왕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반역행위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뉘우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반역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죄인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다시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 다시는 반역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음모를 꾸미려는 죄인을 어떤 왕이 그 죄를 탕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려면(침례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돌아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섬(회개) 없는 하나됨(침례)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왕 앞에서 회개하고, 왕의 면전을 떠나서는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뻔히 아는 어떤 왕이 그의 회개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그를 풀어주고, 다시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어울리는) 열매들을 내라.

눅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족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느니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함이니 곧, 하나님은 이들 돌들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반역죄인의 행위는 그의 회개에 합당한, 그의 회개에 일치하는 행실(열매)을 낼 것입니다.

**3.알 수 없는 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침례**

Ω마0311. 나는 실로 회개(마음과 생각을 바꿈, 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에 이르게 하려고[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착색하다)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세력(힘)이 있으시니, 나는 그 분의 신들을 들고 다니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침례(하나됨)의 또 하나의 목적은 제대로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가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는 자백이나 고백하며, 죄를 회개할 수 있으나,

우리의 타락성으로 인해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쩌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깨끗한 양심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각할 수 없으며,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0311의 말씀은 우리로 회개시키려고 물 침례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침례’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침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침례를 먼저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와 침례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하나가 되기 위한 필 수 조건**

여기서 잠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결별하셨을까라고 저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악과 따먹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점이나 흠의 크기에 상관없이, 아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물이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속성상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어떤 흠이나 점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 자신도 영원히 살아계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영생의 비밀은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Ω롬0512. 그러므로 한 남자(사람)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과 같이,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모든 이들 위에 일어났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음이라.

성경은 사망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망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흠이나 점이 있는 그 무엇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무리 작은 죄였을지라도,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탕감이 없이는, 죄를 없이 함이 없이는 하나됨(침례)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죄의 탕감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한 인간이 필요하셨습니다.

롬0829. 그분께서 사전에 알고 계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또한 사전에 정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1116. 이는 만약 첫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 또한 거룩하고, 또 만약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 역시 그러함이라.

Ω히0210. 이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로 데려감에 있어, 그들의 구원의 우두머리(아르케고스: 지도자,권세자,통치자,왕)를 고난들을 통해 완전무결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들이 있고 또 그에 의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분께 어울렸음이라.

히0211. 이는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시키는 그와 성화되는 그들 양쪽은 모두 하나에 속함이라, 그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느니라.

롬0519. 이는 한 사람의 불청종에 의해 많은 이들이 죄인들로 되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청종에 의해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법적으로 깨끗하게) 됨이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께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분은 인간의 죄들을 탕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 하나 하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물을 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면,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어떤 죄와도 함께 동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어떤 죄도 없는, 머리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5.성령 침례**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한 침례를 주십니다.

막0108. 참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었거니와,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느니라.

눅0316. 요한이 대답하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느니라, 그러나 나보다 더 세력(힘)있는 분이 오시느니라, 나는 그분 신발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행0105. 이는 요한이 참으로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었으나, 너희는 지금부터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이라."

2)침례와 성령의 임재와의 관계

Ω행0814.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저들에게 보내니라.

행0815. 그들이 내려갔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라.

행0816. [이는, 아직은 그들 중의 누구 위에도 그분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음이라, 단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만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후에야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성령의 임재).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받게(성령의 임재)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Ω행1903.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말하니라, "요한의 침례에로",

Ω행1904. 그러자 바울이 말하니라, 참으로 요한이 자기 뒤에 오셔야 할 분 위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백성이 믿어야 함을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로써 침례를 주었느니라.

Ω행1905. 그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행1906. 그리고 바울이 그들 위에 자기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말들 (글롯싸:혀,언어,말,방언)로 말하고, 대언(代言)하니라.

침례 요한의 물 침례에로 침례를 받았던 에페수스의 신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바울에게서 물 침례를 받았으며, 성령 침례는 물 침례 받았을 때가 아니고, 물 침례 받고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계는 일반적으로 침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듭남과 성령세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침례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와 거듭남, 성령의 임재, 성령침례의 시기적 상관관계의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성령침례를 받은 자들이 또 물 침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행1045. 그리고 믿던 할례주의 자들(페리토메: 할례,할례자)이 곧, 베드로와 함께 왔던 모든 이들이 놀랐으니, 이는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음이라.

행1046. 이는 그들이 말들(글롯싸:혀,언어,말,방언)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드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이라.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니라,

행1047. 이들이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지 못하도록, 누가 물을 금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았느니라.

행1048. 이에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도록 명하니라, 그후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동안 머물기를 구하니라.